

目 次

東洋古典譯註叢書を 발간하면서

譯者 序文

解 題

凡 例

參考書目

目 次

王文公文抄引 / 33

王文公本傳 / 36

卷1 上書

01. 上仁宗皇帝言事書 仁宗皇帝께 國事に 관한 의견을 말씀드린 글 / 46

卷2 筭子・疏・狀

01. 本朝百年無事筭子 우리나라가 백 년간 큰 變故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이유를 물으신 皇帝의 질문에 답한 筭子 / 94

02. 上五事筭子 다섯 가지 일에 대하여 올린 筭子 / 102

03. 論館職筭子 館職에 대하여 논한 筭子 / 107

04. 相度牧馬所舉薛向筭子 相度牧馬所에 薛向을 천거하는 筭子 / 115

05. 進戒疏 권계할 말씀을 올린 疏 / 119

06. 上時政疏 時政에 대한 上疏 / 122

07. 辭集賢校理狀 集賢院 校理를 사양하는 글 / 126

卷3 表·啓

01. 除參知政事謝表 參知政事に 除授됨을 감사하는 表 / 130
02. 除平章事監修國史謝表 平章事, 監修國史에 제수됨을 감사하는 表 / 132
03. 觀文殿學士知江寧府謝上表 觀文殿學士, 知江寧府에 제수됨을 감사하여 올린 表 / 136
04. 除平章事昭文館太學士謝表 平章事, 昭文館太學士에 제수됨을 감사하는 表 / 138
05. 辭免使相判江寧府表 使相判江寧府의 사직을 청하는 表 / 140
06. 朱炎傳聖旨令視府事謝表 朱炎이 府의 일을 주재하도록 하는 聖旨를 전한데 감사하는 表 / 142
07. 差弟安上傳旨令授勅命不須辭免謝表 아우 安上에게 傳旨를 내려 勅命으로 임명하시고, 辭免을 운허하지 않으심에 감사하는 表 / 143
08. 賀南郊禮畢肆赦表 南郊에서 제례를 올린 후 죄수를 풀어준 것을 축하하는 表 / 145
09. 賀正表 新正을 축하하는 表 / 148
10. 賜生日禮物謝表 생일에 예물을 하사하신데 감사하는 表 / 149
11. 甘師顏傳宣撫問并賜藥謝表 甘師顏을 보내어 宣旨를 전하며 위문하고, 아울러 약을 하사하신데 감사하는 表 / 151
12. 李舜舉賜詔書藥物謝表 李舜舉를 보내어 詔書와 약물을 내려 주신데 감사하는 表 / 152
13. 中使撫問謝表 환관을 보내어 慰撫해 주신데 감사하는 表 / 154
14. 中使宣醫謝表 환관을 보내어 宣旨로 御醫를 파견하신데 감사하는 表 / 155
15. 請皇帝御正殿復常膳表 황제께서 正殿으로 돌아가시고 常膳을 회복하기를 청하는 表1 / 156
16. 請皇帝御正殿復常膳表二 황제께서 正殿으로 돌아가시고 常膳을 회복하기를 청하는 表2 / 158
17. 乞罷政事表一 재상의 직을 면해 주기를 청하는 表1 / 160
18. 乞罷政事表二 재상의 직을 면해 주기를 청하는 表2 / 162
19. 乞出表一 재상의 직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청하는 表1 / 164
20. 乞出表二 재상의 직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청하는 表2 / 165
21. 乞退表一 물러나기를 청하는 表1 / 167
22. 乞退表二 물러나기를 청하는 表2 / 169
23. 乞退表三 물러나기를 청하는 表3 / 171

24. 乞宮觀表一 宮觀使로 나가게 해줄 것을 청하는 表1 / 173
25. 乞宮觀表二 宮觀使로 나가게 해줄 것을 청하는 表2 / 174
26. 乞宮觀表三 宮觀使로 나가게 해줄 것을 청하는 表3 / 175
27. 手詔令視事謝表 손수 詔書를 내려 일을 주재하도록 하신데 감사하는 表 / 177
28. 詔以所居園屋爲僧寺及賜寺額謝表 거주하던 園屋을 僧寺로 만들도록 허락하고 편액을 하사한데 감사하는 表 / 180
29. 依所乞私田充蔣山太平興國寺常住謝表 私田을 蔣山 太平興國寺의 常住에 충당하기를 청한 것을 들어주신데 감사하는 表 / 181
30. 百寮賀復熙河路表 百寮와 함께 熙河路를 회복한 것을 축하하는 表 / 182
31. 除雱正言待制謝表 아들 雱이 正言 待制에 제수됨을 감사하는 表 / 185
32. 進字說表 《字說》을 撰進하며 올린 表 / 188
33. 除知制誥謝表 知制誥에 제수됨을 감사하는 表 / 191
34. 除翰林學士謝表 翰林學士에 제수됨을 감사하는 表 / 192
35. 賀韓魏公啓 韓魏國公이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감을 축하하는 편지 / 194
36. 上杭州范資政啓 杭州 范資政에게 올린 편지 / 197

卷4 書

01. 上相府書 재상에게 올린 편지 / 200
02. 上執政書 執政에게 올린 편지 / 203
03. 上曾參政書 曾 參政에게 올린 편지 / 208
04. 上杜學士書 杜 學士에게 올린 편지 / 212
05. 上杜學士言開河書 杜 學士에게 물길을 터 놓았음을 아뢰는 편지 / 215
06. 上郎侍郎書 郎 侍郎에게 올린 편지 / 218
07. 上田正言書 田 正言에게 올린 편지 / 219
08. 上田正言第二書 田 正言에게 올린 두 번째 편지 / 224
09. 上運使孫司諫書 運使 孫 司諫에게 올린 편지 / 226
10. 上凌屯田書 代人作 凌 屯田에게 올린 편지(남을 대신하여 짓다) / 232
11. 上人書 어떤 사람에게 올린 편지 / 234
12. 與參政王禹玉書 參政 王禹玉에게 보낸 편지 / 237

30 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 1

- 13. 與馬運判書 馬 運判에게 보낸 편지 / 239
- 14. 與王子醇書 王子醇에게 보낸 편지 / 241
- 15. 上邵學士書 邵 學士에게 올린 편지 / 244

卷5 書

- 01. 與王深甫書 王深甫에게 보낸 편지 / 248
- 02. 與王逢原書 王逢原에게 보낸 편지 / 254
- 03. 與趙高書 趙高에게 보낸 편지 / 259
- 04. 與祖擇之書 祖擇之에게 보낸 편지 / 261
- 05. 請杜醇先生入縣學書 杜醇선생에게 縣學에 들어와 스승이 되어 주기를 청하는 편지 / 264
- 06. 請杜醇先生入縣學書二 杜醇선생에게 縣學에 들어와 스승이 되어주기를 청하는 편지2 / 265
- 07. 答曾公立書 曾公立에게 보낸 답서 / 267
- 08. 答司馬諫議書 司馬 諫議에게 보낸 답서 / 269
- 09. 答孫元規大資書 孫元規 大資에게 보낸 답서 / 273
- 10. 答曾子固書 曾子固에게 보낸 답서 / 275
- 11. 答李資深書 李資深에게 보낸 답서 / 278
- 12. 答王深甫書 王深甫에게 보낸 답서 / 279
- 13. 答李秀才書 李 秀才에게 보낸 답서 / 283
- 14. 答韶州張殿丞書 韶州 張 殿丞에게 보낸 답서 / 284
- 15. 答徐絳書 徐絳에게 보낸 답서 / 287
- 16. 答段縫書 段縫에게 보낸 답서 / 289
- 17. 答楊忱書 楊忱에게 보낸 답서 / 293
- 18. 答張幾書 張幾에게 보낸 답서 / 295
- 19. 答錢公輔學士書 學士 錢公輔에게 보낸 답서 / 296
- 20. 答陳杞書 陳杞에게 보낸 답서 / 298

卷6 序

- 01. 周禮義序 《周禮義》의 序文 / 301
- 02. 書義序 《書義》의 序文 / 304

03. 詩義序 《詩義》의 序文 / 306
04. 熙寧字說序 《熙寧字說》의 序文 / 308
05. 老杜詩後集序 《老杜詩後集》의 序文 / 311
06. 靈谷詩序 《靈谷詩》의 序文 / 313
07. 石仲卿字序 石仲卿의 字를 지어주며 써준 序文 / 315
08. 送李著作之官高郵序 李 著作郎이 高郵로 벼슬하러 가는 것을 餞送하는 送序 / 317
09. 送陳興之序 陳興之를 餞送하는 送序 / 318
10. 送陳升之序 陳升之를 餞送하는 送序 / 320
11. 送胡叔才序 胡叔才를 餞送하는 送序 / 323
12. 送孫正之序 孫正之를 餞送하는 送序 / 326

卷7 記

01. 虔州學記 虔州에 학교를 세운 일을 기록한 記 / 329
02. 繁昌縣學記 繁昌縣에 학교를 세운 일을 기록한 記 / 336
03. 慈溪縣學記 慈溪縣에 학교를 세운 일을 기록한 記 / 339
04. 度支副使廳壁題名記 度支副使廳 壁에 前任者들의 이름을 기록한 記 / 344
05. 撫州通判廳見山閣記 撫州 通判廳의 見山閣記 / 347
06. 桂州新城記 桂州城 新築記 / 351
07. 信州興造記 信州의 再建을 기록한 記 / 355
08. 餘姚縣海塘記 餘姚縣의 防潮堤를 築造한 記 / 359
09. 通州海門興利記 通州 海門縣에서 백성을 이롭게 한 일을 기록한 記 / 362

卷8 記

01. 揚州新園亭記 揚州 園亭 新築記 / 365
02. 芝閣記 芝閣記 / 367
03. 君子齋記 君子齋記 / 369
04. 石門亭記 石門亭記 / 371
05. 鄞縣經遊記 鄞縣을 巡視한 記 / 373
06. 遊褒禪山記 褒禪山 遊覽記 / 375

- 07. 撫州祥符觀三清殿記 撫州 祥符觀 三清殿 건립기 / 378
- 08. 楊州龍興講院記 楊州 龍興寺 講院 건립기 / 379
- 09. 眞州長蘆寺經藏記 眞州 長蘆寺 藏經閣 건립기 / 381
- 10. 大中祥符觀新修九曜閣記 大中 祥符觀의 九曜閣 新築記 / 383
- 11. 撫州招僊觀記 撫州 招僊觀을 重築한 記 / 384
- 12. 廬山文殊像現瑞記 廬山 文殊像이 상서로운 징조를 보인 記 / 386
- 13. 漣水軍淳化院經藏記 漣水軍 淳化院 藏經閣 건립기 / 387

宋大家王文公文抄 卷1

上書

01. 上仁宗皇帝言事書^{*} 仁宗皇帝께 國事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린 글

* 本 上書는 왕안석이 지방관으로 있다가 京官으로 소환된 仁宗 嘉祐 4년(1059)에 인종황제에게 올린 것이다. 그 내용은 北宋 中期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왕안석이 제시한 變法の 綱領的 성격을 띤 매우 중요한 글이다. 長篇의 文章이므로 一名 〈萬言書〉라고도 칭한다.

荊公은 以王佐之學과 與王佐之才로 自任이라 故 其一生措注가 已盡於此書中이요 所以結知主上도 亦全在此書中이라 然其學本經術이라 故 所言이 非漢唐以來宰相所能見이로되 而其偏拗自用이 大較與商鞅所欲變法處相近이라 故 其功業도 亦遂大壞하야 而反不如近世浮沈者之得하니 學者 須具千古隻眼看之니라 此書幾萬餘言이로되 而其絲牽繩聯이 如提百萬之兵하야 而鉤考部曲이 無一不貫이라

荊公(왕안석)은 王을 보좌할 만한 학식과 王을 보좌할 만한 재능을 가졌다고 스스로 자부하였다. 그 때문에 그가 일생 동안 집중적으로 처리한 것들이 이 글 가운데 이미 다 드러나 있고, 황제와 뜻이 맞게 된 이유도 또한 이 글 가운데 모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학문은 經術에 근본을 두고 있으므로 건의한 내용이 漢唐 이래의 재상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는 아니었지만, 완고하게 외고집을 부리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체로 商鞅이 시행하고자 했던 變法과 유사하여 그의 공로와 업적도 드디어 크게 무너졌고, 도리어 근세에 남의 장단에 춤추며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긴 것만도 못하게 되었으니, 학자들은 모름지기 千

古를 꿰뚫어 보는 뛰어난 견해를 가지고 읽어야 한다.

이 글은 거의 萬餘言에 가까운데도 整然하게 연이어 전개되는 풍부한 논리가 百萬 군사를 이끌면서 行伍가 질서정연하여 하나도 관통하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

臣愚不肖로 蒙恩¹⁾하야 備使一路¹⁾러니 今又蒙恩²⁾하야 召還闕廷²⁾하야 有所任屬하니 而當以使事歸報陛下나 不自知其無以稱職하고 而敢緣使事之所及하야 冒言天下之事하니 伏惟陛下詳思而擇其中이시면 幸甚이로소이다

臣은 어리석고 못난 사람인데도 皇恩을 입어 한 路의 직책에 충원되었다가, 이제 다시 은혜를 입어 조정에 소환되어 京職을 맡게 되었습니다. 담당했던 직무가 있었으니 당연히 맡았던 일에 대하여 폐하게 보고를 드려야 하나, 그 직분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감히 담당하였던 직무를 근거로 하여 참람함을 무릅쓰고 천하의 일에 대하여 말씀 올리오니, 엇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게서는 자세히 헤아리셔서 그 가운데서 채택하심이 있게 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 1) 路 : 宋代의 지방행정구역 단위로서 지금의 省에 해당된다. 備使一路는 皇命을 받아 한 路의 특정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뜻이다.
- 2) 闕廷 : 朝廷을 뜻한다. 당시 回京하여 度支判官에 임명되었음을 말한다.

臣竊觀^{견대}陛下有恭儉之德^{하시}고 有聰明睿智之才^{하사} 夙興夜寐^{하사} 無一日之懈^{하시}며 聲色狗馬와 觀遊玩好之事에 無纖介之蔽^{하시}며 而仁民愛物之意가 孚於天下^{하시}고 而又公選天下之所願^{하사} 以爲輔相者^{하사} 屬之以事^{하시}고 而不貳於讒邪傾巧之臣^{하시}니 此는 雖二帝三王¹⁾之用心도 不過如此而已^니이다 宜其家給人足하야 天下大治어늘 而效不至於此하야 顧內則不能無以社稷²⁾爲憂하고 外則不能無懼於邊釁³⁾하며 天下之財力은 日以困窮하고 而風俗은 日以衰壞하며 四方有志之士는 惏惏然常恐天下之久不安^{하니} 此其故何也^니잇고 患在不知法度故也^니이다

신이 삼가 관찰하건대 폐하게서는 공손 검소한 덕을 품으시고, 총명하고 밝은 지혜

를 지니고 계시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이 늦어서야 주무시며 하루도 게으르게 지내는 일이 없으시고, 음악, 여색, 사냥, 유람, 기호 등에 一絲一毫도 탐닉하심이 없으시며, 백성에게 인자하고 만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온 천하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시고, 천하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천자를 보좌할 재상으로 공정하게 선발하여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며, 사악하게 참소하거나 교활 간사한 신하에게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점은 비록 二帝 三王께서 마음 쓰셨더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당연히 집집마다 풍족해지고 사람마다 넉넉해져서 천하가 크게 잘 다스려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이에 이르지 않으니, 돌이켜보건대 안으로는 社稷에 근심되는 일이 없다 할 수 없고, 밖으로는 변방 오랑캐들의 소요가 없다 할 수 없으며, 천하의 경제는 날로 곤궁해지고, 풍속은 날로 피폐해지며, 사방의 뜻있는 선비들은 천하가 오랫동안 평안하지 않음을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는 法度を 알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 1) 二帝三王 : 二帝는 전설에 등장하는 上古時代의 聖君 唐堯와 虞舜을 칭하고, 三王은 夏禹, 商湯, 周의 文王과 武王을 칭하며 모두 開國君主들이다.
- 2) 社稷 : 古代의 帝王들이 제사를 올렸던 土地神과 穀食神을 칭하며, 그 의미가 轉移되어 國家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國家를 指稱하는 의미로 쓰였다.
- 3) 邊鄙 : 저본에는 ‘夷狄’으로 되어 있는데, 淸 四庫館의 관리가 淸人의 名을 諱하여 고친 것으로 보인다.

今朝廷이 法嚴令具^{하야} 無所不有^{로되} 而臣以謂無法度者^는 何哉^오 方今之法度^는 多不合乎先王¹⁾之政故也^{니이다} 孟子曰 有仁心仁聞^{이로되} 而澤不加於百姓者^는 爲政에 不法於先王之道故也²⁾라하니 以孟子之說로 觀方今之失이면 正在於此而已^{니이다}

지금의 조정은 法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律令이 잘 구비되어 있어 갖추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신이 법도가 없다고 이르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의 법도는 옛 先王들이 행한 政事와 합치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孟子는, “어진 마음을 지니고 있고 어질다는 소문이 났는데도 恩澤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정치를 행할 때에 선왕의 道를 본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맹자의 주장을 가지고 지금

의 失政의 원인을 살펴본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 1) 先王：上古의 聖君인 二帝(堯·舜) 三王(禹·湯·文·武)을 지칭한다.
- 2) 孟子曰……不法於先王之道故也：이 내용은 《孟子》〈離婁 上〉에 “지금 군주가 어진 마음과 어질다는 소문이 있는데도 백성들이 그 은택을 입지 못하여 후세에 법이 될 수 없는 것은 先王의 道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今有仁心仁聞 而民不被其澤 不可法於後世者 不行先王之道也]”라고 보인다.

夫以今之世는 去先王之世遠하고 所遭之變과 所遇之勢不一이어늘 而欲一一修先王之政이면 雖甚愚者라도 猶知其難也니이다 然臣以謂今之失이 患在不法先王之政者는 以謂當法其意而已니이다 夫二帝三王은 相去蓋千有餘載에 一治一亂하야 其盛衰之時具矣니이다 其所遭之變과 所遇之勢가 亦各不同하고 其施設之方도 亦皆殊나 而其爲天下國家之意와 本末先後는 未嘗不同也니이다 臣故曰 當法其意而已라하노니 法其意면 則 吾所改易更革이 不至乎傾駭天下之耳目하고 嚚天下之口로되 而固已合乎先王之政矣리이다

대저 지금의 시대는 先王의 시대와 떨어짐이 멀고, 당면한 변고와 처한 형세가 동일하지 않은데, 사안에 직면할 때마다 선왕의 정사를 일일이 적용하려 한다는 것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것이 곤란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이 지금의 과실이 선왕의 정사를 본받지 않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땅히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함을 이르는 것입니다.

대저 二帝와 三王은 대체로 千餘 年씩 그 시대가 차이가 나는데, 한번 잘 다스려지고 한번 어지러워져서 그 盛衰의 시대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당면했던 변고와 처했던 형세가 또한 서로 다르고 그에 대처한 방법도 모두 다르지만, 그들이 천하 국가를 다스린 정신의 本末과 先後는 일찍이 같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臣이, “마땅히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개혁하려는 바가 천하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하거나 천하 사람들의 입에서 원성이 나오지 않게 하고도, 진실로 선왕들이 행한 정사와 이미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雖然이나 以方今之勢揆之^{컨대} 陛下雖欲改易更革天下之事^{하야} 合於先王之意^{라도} 其勢必不能也^{니이다} 陛下有恭儉之德^{하시고} 有聰明睿智之才^{하시며} 有仁民愛物之意^{하시니} 誠加之意^면 則何爲而不成^{이며} 何欲而不得^{이리잇가} 然而臣顧以謂陛下雖欲改易更革天下之事^{하야} 合於先王之意^{라도} 其勢必不能者^는 何也^오 以方今天下之人才¹⁾ 不足故也^{니이다}

비록 그러하나 지금의 形勢를 考察해보건대, 폐하께서 천하의 일을 새롭게 變革하고자 하여 그것이 先王들의 뜻과 합치된다 해도 그 형세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공손하고 검소한 덕을 지니시고 총명하고 밝은 지혜와 백성들에게 인자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실로 이런 뜻을 시행하려 하신다면, 무슨 일을 한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무엇을 하고자 한들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신이 살펴보건대 폐하께서 비록 천하의 일을 새롭게 변혁하여 선왕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하시려는 뜻을 가지셨는데도, 형세를 살펴보건대 틀림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지금의 천하에는 그런 일을 할 만한 人才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1) 人才 : 여기에서 말하는 人才는 德行과 學問이 뛰어나서 국가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인물을 지칭한다.

臣嘗試竊觀天下在位之人^{컨대} 未有乏於此時者也^{로소이다} 夫人才乏於上^{이면} 則有沈廢伏匿在下^{하야} 而不爲當時所知者矣^{니이다} 臣又求之於閭巷草野之間^{호되} 而亦未見其多焉^{하니} 豈非陶冶而成之者 非其道而然乎^{잇가} 臣以謂方今在位之人才不足者^는 以臣使事之所及則可知矣^{리이다} 今以一路數千里之間^에 能推行朝廷之法令^{하야} 知其所緩急^{하야} 而一切能使民以修其職事者^는 甚少^{하고} 而不才苟簡貪鄙之人^은 至不可勝數^{니이다} 其能講先王之意^{하야} 以合當時之變者^는 蓋闔郡之間^에 往往而絕也^{니이다} 朝廷每一令下^에 其意雖善이나 在位者猶不能推行^{하야} 使膏澤加於民^{하고} 而吏輒緣之爲姦^{하야} 以擾百姓^{하니} 臣故^로 曰 在位之人才不足^{하고} 而草野閭巷之間^에 亦未見其多